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집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



동성애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목차

4쪽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집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를 발간하며
교육안	
6쪽	어색함깨트리기 스피드퀴즈 <성과 관련된 단어 맞추기>
9쪽	나의 성정체성을 좌표에 찍어보는 <나는 어디에 있나?>
24쪽	각자가 가진 스킨십, 노출, 친밀함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사회적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보는 <거기까지>
34쪽	사회적 금기 수평선에 표시해보기
39쪽	차별의 땅 건너기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집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를 발간하며

이 자료집은 동성애자인권연대 교육팀이 2013년 10월 19일(토), 11월 2일(토)에 진행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요청 받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의형 교육으로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내 주변의 누군가로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외계인으로만 바라볼 때, 한계를 느끼고는 합니다. “나는 정상이고, 성소수자는 비정상”이란 구분을 깨지 않는 한 성소수자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성애인권연대 교육팀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권교육,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인권교육,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우리 모두의 인권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참여형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들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러한 지점들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비판들을 들으면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이 교육프로그램이 유용할지에 대한 차이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도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사용하려면 많은 피드백과 수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정리/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아이디어 수준의 교육안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좋은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동성애자인권연대 교육팀

나라, 주리, 이경, 덕현, 의표, 지아

〈성소수자 인권 교육〉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

세상은 정말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있었을까?
정적인 게 남일까?
내가 말하는 사람과 내가 느끼는 사람은 같은 걸까?
내가 갖고 있는 관계와 감정들을 사상에 감동하는 데에 막 걸림?
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나요?

〈동성애자인권연대 교육팀〉에서는 새롭게 만든 성소수자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성소수자를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정체성의 다양함과 거기에 새겨진 위계와 차별을 인식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억압이 다른 다른 인권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받으면서 같이 평가하실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일정: 10월 19일(토), 11월 2일(토) 오후1시~6시
장소: 인권중심 2층 다목적홀
신청: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12일까지 lgbtpride@empas.com 로 보내주세요.
참가비: 비청소년 만원, 청소년 오천원(당일 납부)
참가인원: 20명 제한 선착순 (모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우선합니다)
대상: 성소수자인권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인권/교육 활동가, 성소수자인권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 (여기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표

10월 19일(토)

13:00 어색함깨기 프로그램 <스피드 퀴즈>
 14:00 나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좌표에 찍어보는 <나는 어디에 있나?>
 15:30 쉬는 시간
 16:00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살펴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이건 할 수 있어, 하면 안돼.>
 17:30 평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11월 2일(토)

13:00 어색함깨기 프로그램
 14:00 차별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찾고, 연대의 방법을 찾아가는 말판게임 <차별의 땅 건너기>
 15:30 쉬는 시간
 16:00 네가지 키워드로 토론해보는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어떡해?>
 17:30 평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교육팀
lgbtpride@empas.com

2013년에 진행된
 〈성소수자 인권 교육〉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

시간표

10월 19일(토)

13:00 어색함깨기 프로그램 <스피드 퀴즈>
 14:00 나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좌표에 찍어보는 <나는 어디에 있나?>
 15:30 쉬는 시간
 16:00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살펴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이건 할 수 있어, 하면 안돼.>
 17:30 평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11월 2일(토)

13:00 어색함깨기 프로그램
 14:00 차별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찾고, 연대의 방법을 찾아가는 말판게임 <차별의 땅 건너기>
 15:30 쉬는 시간
 16:00 네가지 키워드로 토론해보는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어떡해?>
 17:30 평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색함깨트리기 스피드퀴즈

〈성과 관련된 단어 맞추기〉

I.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해지기 쉬운 성과 관련된 단어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피드퀴즈를 통해 알아본다.

어떤 설명이 가장 잘 전달되는지, 어떤 설명이 좋고, 나쁘다고 느껴지는지 알아본다.

II. 준비

○ 준비물: 단어들이 적혀있는 스케치북

-예시단어

오르가즘, 흥분, 쾌락, 위험, 성욕, 정력, 열정, 체취, 섹시하다, 외로움, 본능, 불감증, 애무, 부치, 팸, 드랙, 크로스드레서, 패티쉬,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다자연애, SM, 이성애자, 변태, MTF, FTM, 정상인, 시스젠더, 야오이, 무성애자,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인터섹스, 젠더, 호모포비아, 섹스, 바이브레이터, 피임, 임신, 자위, 프팬치키스, 콘돔, 브라지어, 낙태, 사후피임, 임신테스트, 월경, 포르노, 콘돔, 딜도, 야동, 몽정, 에로, 생리대, 다이어트, 성형수술, 화장, 나쁜남자, 아이돌, 건어물녀, 누드모델, 초식남, 마초, 아르바이트, 사춘기, 팬픽, 로맨스, 사랑, 친구, 가족, 애인, 동거, 결혼, 연애, 프리허그, 조건만남, 데이트, 스킨십, 양다리, 바람, 불륜, 원조교제, 원나잇, 섹파, 부부, 여보, 당신, 파트너, 플라토닉, 성폭력, 성매매, 성적자기결정권, 성차별, 페미니즘, 모텔, 침대, 잠자리, 클럽, 에이즈, HIV, 성병 등

○ 적정참여인원: 모두 별로 진행됨으로 큰 제한은 없다.

III. 프로그램 내용

1. 진행

1) 조별로 나눠서 한 명은 스케치북이 안 보이는 위치에 서고 나머지는 맞은 편에 있다.

2) 스케치북을 보고 그 뜻을 설명하면 스케치북이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춘다.

3) 단어를 맞추거나 패스를 하면, 이번에는 설명한 사람이 맞추는 위치로 달려와 맞추

는 위치에 선다. 단어를 맞춘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서 다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2. 정리

- 스피드퀴즈를 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단어나, 맘에 들지 않는 설명, 기발했던 설명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있다고 느낀다면 어째서 그런지도 이야기 나눠본다.
- 단어는 구성원에 따라 단어의 종류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성정체성을 좌표에 찍어보는
〈나는 어디에 있나?〉

I.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도록 짜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는 무엇인지, 나는 그 기준에 맞는 건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대상에게 끌리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참여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스스로의 위치를 좌표에 찍어본다. 그러면서 성정체성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단순한 이분법을 버리고 상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남자/여자 이분법, 이성애자=정상, 동성애자=비정상”같은 편견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II. 준비

○준비물: 앞에다 붙일 좌표가 그려진 전지, 필기도구, 포스트잇, 스티커, 개인별로 나눠줄 좌표가 그려진 용지

○예상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적정참여인원: 20명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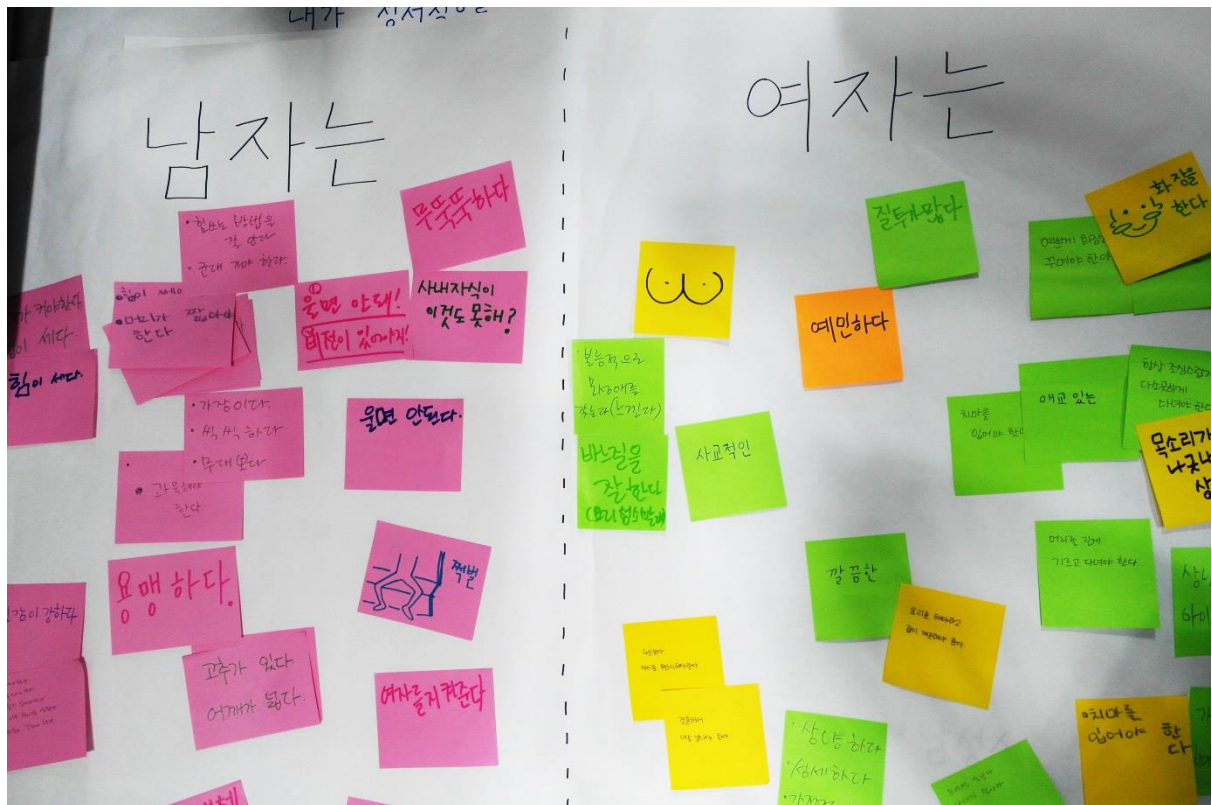
진행준비: 참여자들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전지에 붙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좌표가 그려진 전지를 앞에다 붙여 놓고, 포스트잇도 나눠준다.



III.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1)남자는? 여자는?, 2)언제 자신을 남자 혹은 여자라고 느끼나요?, 3)성적으로 끌리는 정도는? 4)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은? 네 파트로 구성된다.

1. 남자는? 여자는?



1-1. 포스트 잇에 지금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 여겨지는 특징들을 적어보도록 한다. (남녀 포스트잇 색깔을 달리 해서 적도록 한다) 신체적인 특징, 하고 다니는 모습, 태도, 행동까지 모두를 포괄한다. 편견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다 적는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어요.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보통 사회에서 하는 말들. 내가 보고 들은 말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두가지 중에 보라색에는 남자, 노란색에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적어주세요.

이해가 쉽도록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몇 개 들어줄 수 있다. (수염이 나나요? 힘이 약한가요? 서서 오줌을 싸나요? 털털한가요? 화장을 하나요?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등)

1-2. 각자 포스트잇에 적은 걸 칠판에다 모두 붙인다.

1-3. 어떤 것들이 붙었는지 진행자가 읽으면서 살펴보고,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제가 대충 정리해보니까. 고추가 있다, 어깨가 넓다, 이런 건 몸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치마를 입는다, 깔끔하다 이런 건 외모나 어떻게 꾸미느냐에 관한 거 같고요. 울면 안돼, 예민하다, 이런 건 태도나 행동, 성격에 대한 거 같네요.

그럼 여기 나온 것 중에 질문 몇 개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자신이 어깨가 넓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다른 질문 다리를 모으고 앉는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마다 드는 손이 다르네요.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건 아닌 거 같다 싶은 게 있나요?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00님?

여기 있는 기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자 혹은 여자인가요? 이런 기준들은 변치 않는 걸까요? 우리는 몇 가지 단서들로 사람들이 남자 혹은 여자인지를 판단하지만, 그 단서들이란 것도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길었고, 2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았지요. 염색체, 호르몬, 성기 형태와 같이 생물학적인 단서들은 분명한 듯 하지만, 생물학적인 단서로도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인터섹스가 2천~1만명당 1명씩 태어납니다. (<참고자료1>을 23쪽 참고자료에서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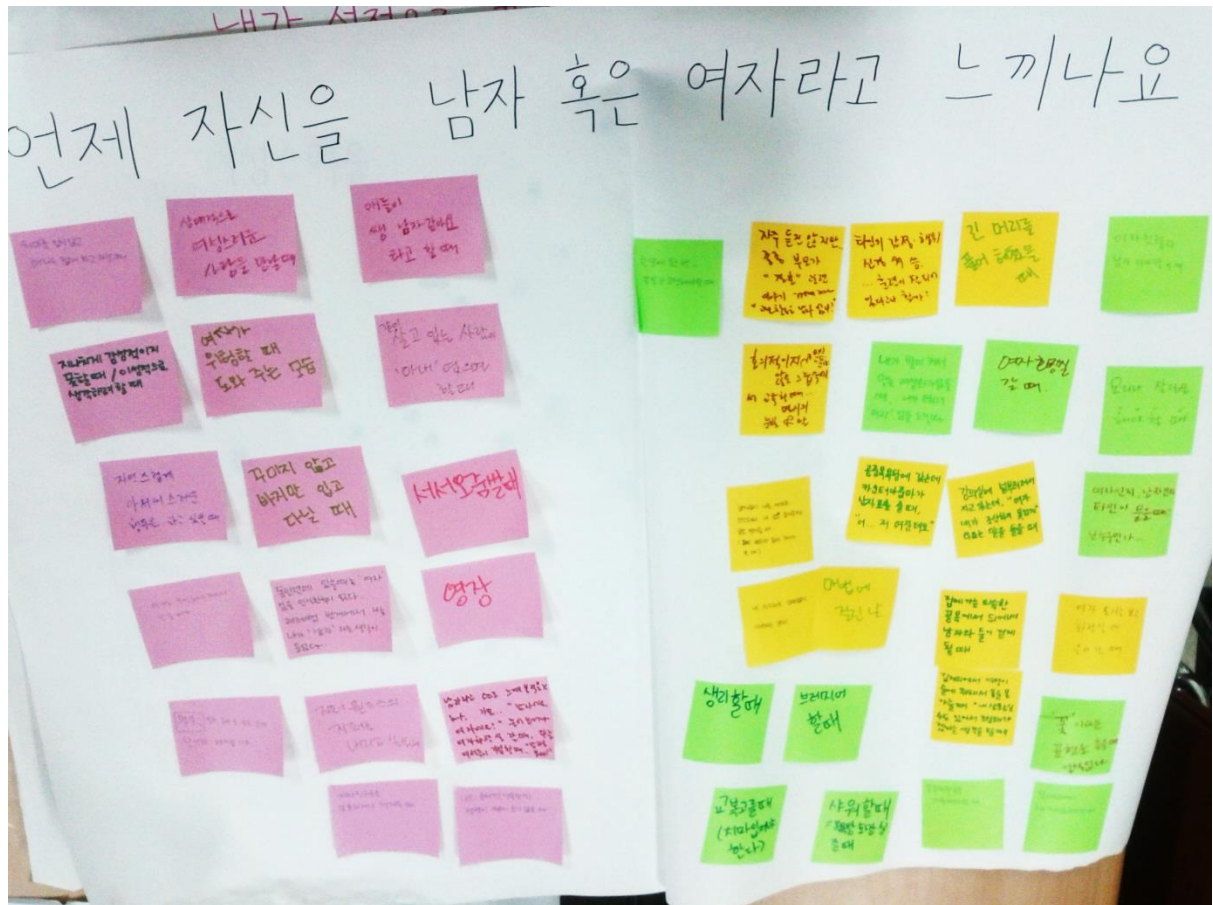
이렇듯 성별은 스펙트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기준으로 삼는 남자와 여자가 양극단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가 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이 어디쯤일 것 같나요?

*포스트잇에 적어준 내용들

남자	여자:
힘이 세다, 씩씩하다, 울면 안 된다, 군대에 가야 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책임감, 리더쉽, 적극적, 고추가 있다, 어깨가	이쁘게 꾸며야 된다, 화장을 한다, 치마를 입어야 한다, 상냥하다, 깔끔하다, 예민하다, 모성애, 아이를 낳는다, 조신해야 한

넓다, 껍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 서서 오줌을 싼다 등	다, 요리를 해야 한다, 집이 깨끗해야 한다, 바느질을 잘한다 등
-----------------------------------	--------------------------------------

2. 언제 자신을 남자 혹은 여자라고 느끼나요?



2-1. 포스트잇에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적어본다. 자신을 남자 혹은 여자로 느끼는지 순간을 적는다. (남녀 포스트잇 색깔을 달리 해서 적도록 한다) 한 명이 남자로 느낄 때와 여자로 느낄 때가 모두 있을 수 있다. 참여자들이 감을 못 잡을 경우 사회자가 예시를 들어준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언제 자신의 성별을 느끼는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남자구나’, ‘여자였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포스트잇 색깔에 나눠서 적어 주시고요. 한 명이 여러 개 적어주셔도 돼요. 어떨 때는 남자, 어떨 때는 여자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내가 남자같다 혹은 여자같다고 느낄 때를 적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 여자친구가 나한테 팔짱을 끼거나 하면 내가 남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친구는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했을 때 자신이 여자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니까 자신의 성별을 느끼기도 하구요. 내가 언제 여자, 혹은 남자라고 느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2-2. 각자 포스트잇에 적은 걸 칠판에다 붙인다.

2-3. 어떤 것들이 붙었는지 진행자가 읽으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은 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런 순간 느낌이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물어보고,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도 물어본다. 똑같은 순간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끌어낸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건 더 듣고 싶네요. 혹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때 느낌은 어땠나요? 좋은 느낌이었나요, 나쁜 느낌이었나요. 자주 자신이 남자/여자 라고 느끼나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나요? 00님?

느끼는 순간들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1) '나는 남자/여자야!'라고 본인이 확신 또는 다짐하는 내용이라면, 2)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남자/여자 같구나. 남자/여자로 여겨지는구나 싶은 내용들도 있구요. 3) '남자/여자 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이 사회가 여자, 남자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내가 원하는 삶과 어디서 부딪히는지, 개인 성별로 만들어진 권력관계에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자/남자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자신을 여자라고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성적기호(볼록한 가슴, 치마, 긴 머리 등)로만 자신이 비춰지고 그걸로 성적대상화 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여성은 자주 그런 식으로 성적대상화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추행을 해도 될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의 권력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이는 자신을 물건처럼 대하는 불쾌한 감정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또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성별에 맞게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남자로 오인 받아 성추행범으로 여겨져 다른 이용자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지요. 애초에 공중화장실이 남자/여자 이 둘로 구분되어 있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고, 화장실은 매우 개인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위협으로 여겨지고, 동성일 때는 또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갈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자신의 성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참고자료2》을 23쪽 참고자료에서 찾아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내였으면 할 때 남자라고 느낀다고 하신걸 보니, 이젠 집에 남편이 가사일 하나도 안하고 집에서 퍼져 있을 때 느끼신 거죠? 나도 아내가 있으면 저렇게 맘놓고 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말이에요.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아내라는 것, 여성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포스트잇에 적어준 내용들**

남자라고 느낄 때:	여자라고 느낄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일 때, 여성스러운 사람을 볼 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내였으면 할 때, 자연스럽게 아저씨스러운 행동을 할 때, 서서 오줌 쌀 때,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는 여자임을 인식한 적 없다, 레즈비언 번개에서, 명절 식사준비 등 모든 일에서 배제될 때, 가끔 남자에요 여자에요 질문을 들을 때, 치마를 입지 않고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닐 때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할 때	한 달에 한번 며칠간 고생해야 할 때, 결혼 얘기, 남자 없냐는 말을 들을 때, 긴머리를 풀어헤쳤을 때, 여자친구들과 남자 이야기를 할 때, 호의적이지 않은 그룹 속에서 교육할 때 멸시의 눈빛, 발이 커서 맞는 여성화가 없을 때, 여자 화장실 갈 때, 요리나 살림을 해야 할 때, 남자들이 내 짐을 들어주거나 도와줄 때, 힘 차이가 많이 날 때
그 외에 나온 이야기들: -같이 사는 사람이 아내였으면 할 때.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같이 쉴 때 내가 모든 걸 챙겨줘야 할 때. 나도 쉬고 싶고, 으레 여자가 모든 걸 해야 할 때. -목욕탕에서 남자 표를 줄 때.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로 오인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아줌마들이 뒷걸음질 칠 때는 불쾌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상대 성별로 보여지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여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남성적, 여성적 역할이	

있는데 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내 성별을 오인할 때. 성별정체성,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라고 느끼는 것과 남성성/여성성을 느끼는 것.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섞인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확실하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여성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끼는 게 억압과 차별의 경험과 연관이 많고 남성은 우대의 경험이 많은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평소에 거의 못 느끼지만 신체 사이즈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성은 생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감 많이 돼요.

-영장이라고 쓰신 분은 누구세요? 친척 오빠가 머리가 길고 락에 꽂혀 있었는데, 영장이 나와서 머리 자르러 끌려가서, 머리를 잘리고 우는 것을 봤어요.

3.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는?

3-1. 아래와 같은 표가 그려진 종이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준다. 각자 체크해 보도록 한다.

번호	질문	5 매우 그렇 다	4 그렇 다	3 보 통 이 다	2 아니 다	1 전혀 아니다
1	나는 성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					
2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섹스하고 싶다.					
3	성행위(자위행위 포함)를 하는 동안 내가 원할 때면 언제나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다					
4	나는 나의 성기와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성적인 흥분과 감각을 즐긴다.					
5	나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들에 대해					

	나는 명확히 알고 있다. 구체적인 성적 판타지가 있다.					
6	나는 가끔 부적절한 시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성적으로 흥분할 때가 있다.					
7	성적인 농담을 좋아한다.					
8	사랑하면 섹스를 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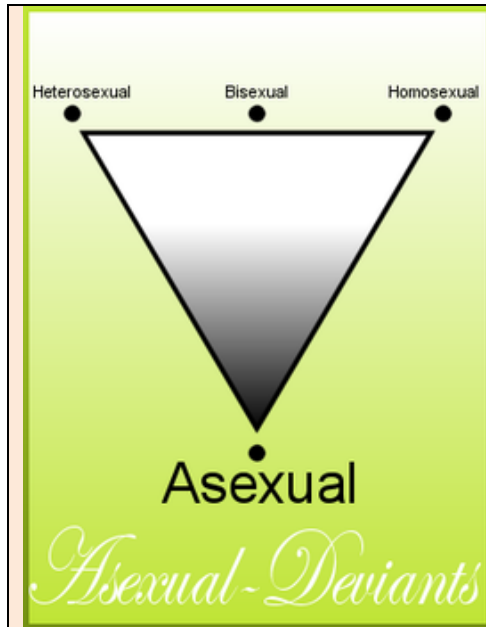
3-2. 체크한 것을 각자 점수로 합산해 본다. 각자 성적으로 끌리는 정도, 성욕이 얼마나 다른지 점수대를 물어봄으로써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점이 나왔나요? 본인은 성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인가요 적은 사람인가요? 사람마다 성적인 욕구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니면 어떤 시기나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성욕이 많으면 좋을 걸까요? 성욕이 없으면 좋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고 중간이 좋을 거라면 과연 중간은 어디쯤일까요? 그 기준도 성별, 나이, 직업,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성욕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여자는 성욕이 없어야 할 것 같고 등등. 우리는 너무 쉽게 ‘정상’이 뭔가 인지에 대한 고정된 틀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욕이 없는 무성애자라고 하면 ‘아픈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꼭 성욕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뭔가요?

3-3. 무성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성욕이 없는 무성애라고 해도 딱 이분법으로 잘리
기보다는 그 사이에 다양한 결들이 있는 것 같아
요. 로맨틱한 감정은 있고,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
지만, 섹스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요. 본인은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고, 섹스에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못 할 건 아닌 사람도 있고,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
참고자료3>을 23쪽 참고자료에서 찾아보세요.)

이렇듯 성적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라, 내
가 느끼는 성적인 욕구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은?



4-1.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여본다.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개인이 느끼는 요소를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섹시하다. 혹은 특정한 상황, 성격, 나의 상태일 수도
있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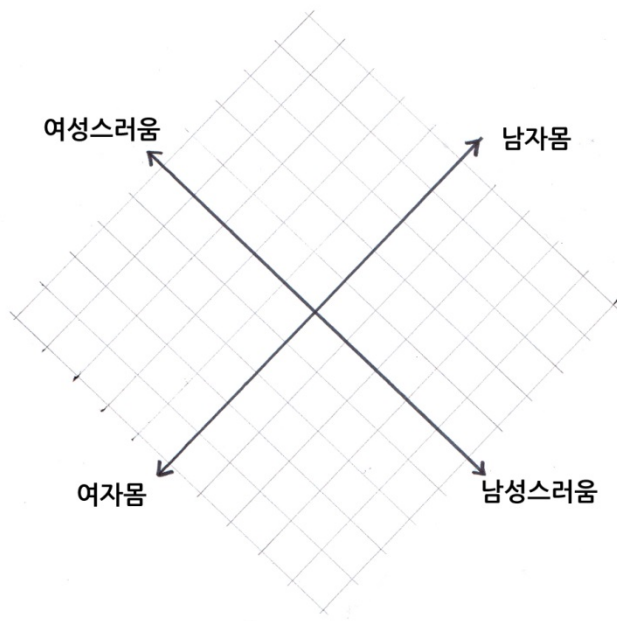
도대체 성적으로 끌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는 거, 설레게 하는 게 뭔가요? 누구는 발목이 섹시한 사람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손을 본다고도 하고, 스칠 때 나는 향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 섹시하다고도 하고. 여러분이 끌리는 요소를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꼭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들을 적어도 되고요.

***포스트잇에 적어준 내용들**

상냥/다정, 가슴골/부드러운 느낌, 중저음 목소리, 핏줄 “딱” 뚫은 손에서 팔목까지, 묘하게 잘 통하는, 나대지 않는(젠틀 마초 싫음), 날씬하고 키 큰 사람(기생오라비 같은), 동글동글한 얼굴/몸, 따뜻하고 큰 손, 자기 일에 직업정신을 갖고 임하는 분, 진지하고 말이 통하는, 가슴이 크신 분, 아름다운 굴곡, 성실함, 잔향이 깊은 사람, (여고) 애들이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비칠 때, 본인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하거나 잘 할 때, 웃는 게 이쁜 사람, 평소에는 모범생 스타일인데 갑자기 짐승모드일 때, 짧은 헤어스타일에 모자가 잘 어울리는, 하얗고 매끈한 몸, 어느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는 사람, 조곤조곤 사소한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술 조금만 마셔도 취해서 애교부리는 사람, 챙겨주고 싶고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연상(20대중반~30대 중후반), 똑똑한 부치언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것 맞다/아니다 딱 말할 줄 아는 사람, 적극적이고 남들 앞에 나서서 말 잘 할 때, 응급시 대처를 잘 할 때, 얼굴 윤곽뼈가 보일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 예쁜 가슴, 곧고 얇은 다리, 나보다 큰 몸집(가슴)에 딱! 안길 때, 여자의 긴 머리칼이 목덜미를 스칠 때, 술이 문제다, 애기 냄새 날 때, 정직하다고 느낄 때, 덩치(골격, 풍채)가 좋은 사람, 키가 작고 아담한, 섬유유연제 향기, 나도 모르게 여자사람 컷볼을 만지작댈 때, 잘록한 허리를 보고 휘어잡고 싶을 때, 아주 익숙하거나 아주 낯선, 엉덩이 라인, 립글로즈 바른 여자의 입술

4-2. 포스트잇에 나온 내용들을 서로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4-3. 칠판에 그려진 좌표에 참여자가 스티커를 붙인다.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요소가 어디쯤인지 생각해보고 붙인다. 동시에 여러 군데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다.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은 같은 좌표에 다른 색깔의 스티커로 붙인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 주로 편하게 어울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붙인다. 동시에 여러 군데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요소에 성적으로 끌리는지 좌표에 표시해 볼 거예요. 이건 영역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자, 만약 내가 매우 남성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린다. 그리고 성격이나 행동은 너무 여자같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요. 그리고 나는 몸은 상관 없고, 중성적인 사람이 좋다 싶으면 이렇게. 이 선이 정도를 나타내는데,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더 특성이 강해지는 거지요.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임의적으로 정도를 정해야 해요. 여러 군데에 붙여도 되어요. 자신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표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상은 다른 색깔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로 편하게 어울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4-4. 참여자들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상이 일치하는지 물어본다.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여성은 여기서 어떤 위치에 스티커를 붙일 거 같은지 참여자들에게 물어본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3번과 4번질문에 대한 답이 비슷하게 나오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손 들어볼까요? 별로 안 되네요. 대부분 저처럼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과, 친해

지고 싶은 사람이란 다른 가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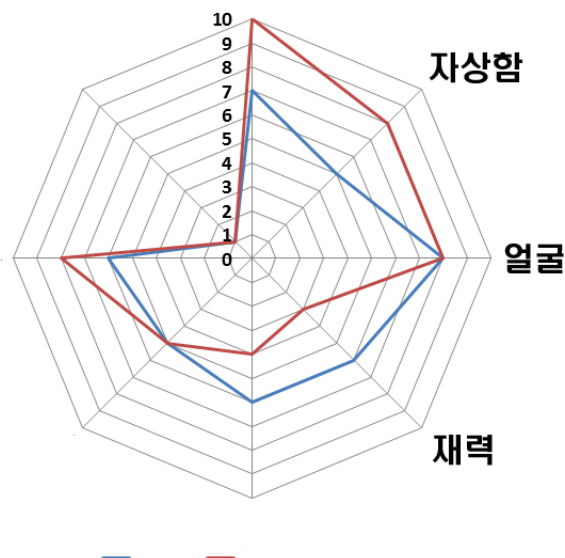
이게 각자 임의적으로 정도를 생각하고 적은 거라서 똑 같은 위치에 붙은 스티커도 막상 직접 들어보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00님?

이번에는 퀴즈를 내볼게요. 성소수자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그래프에 표시해보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여성은 어디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을 거 같나요? 왜 그렇죠? 어때요, 맞는 거 같나요? 어디가 아닌 거 같나요?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성적지향인데요. 어떤 대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 것 같나요?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는가도 단순히 이성애/동성애로 나누기에는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4-5. 이번에는 성별과 관련된 단어(여성스럽다, 남자답다)를 빼고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를 참여자들에게 물어본다. 그것들을 그래프 좌표들에 적어 놓고 각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한다.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상은 다른 색깔로 그려보도록 한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아까 좌표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모든 걸 여자 남자로 설명하는 게 불만이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자/여자라는 말을 빼고 성적으로 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세요. 재력, 손이 이쁜, 자상함 등등 이런 걸로 하나씩 말해주세요. 그럼 그걸 하나씩 그래프에 적고 척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각자 다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듯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을 설명하는 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여성스러운, 남자다운, 이성애자, 동성애자로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 다른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런걸 나누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5. 마무리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이제껏 해온 프로그램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라고 하지만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소수이지요. 사람들은 훨씬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몸조차도 우리가 상상하는 성별이분법 틀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성적인 것인지, 우정과 사랑의 경계는 어디인 것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누구는 쉽게 사랑에 빠지고, 누군 아니고. 누군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고 누군 섹스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갑갑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특정한 나이 때에 성별에 맞게 꾸미고, 이성간에 결혼해서, 둘이서만 섹스하고, 애를 낳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왜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미 많은데 왜 그 틀에 가두려 하는 걸까요? 비정상이라는 눈초리에서 벗어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여자는 이런 거고 어때야만 해’ ‘사랑하면 섹스하고 싶은 거야’ 같은 생각을 깨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회적인 기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지요. 나는 어떤 것들에 성적으로 끌리는지 아닌지, 나는 스스로를 언제 여자 혹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가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남자/여자, 이성애자/동성애자 같은 구분보다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나요? 사람을

빨강과 파랑이 아니라 무지개로 볼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성을, 관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IV. 정리 및 평가

- 성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너무 동일한 집단, 동일함이 요구되는 집단(예를 들어 군대, 학교)일 때에도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교육 목표인 다양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쉽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참여형 보다는 여러 사례를 준비해가 강의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기존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워 할 수 있다. 질문을 던지되, 각 파트마다 사회자의 마무리와 정리가 중요하다.
- 집단에 따라 쉽게 공감하도록 예시를 그들의 경험에서 끌어내면 좋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끌림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팬심을 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기혼 여성 집단일 경우에는 남편이 얼마나 여자같은지에 대한 예시들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대부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용어 설명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이 기대한 것이라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1: 기사, 한겨레, 2013.12.06, 남자였는데...25살, 여성의 성기가 발견됐다
참고자료2: 기사, 프레시안, 2013-04-19, 청소년은 성별을 선택할 수 없나요?
참고자료3: 기사, 한겨레21, 2014.02.25, 섹스 없이도 행복한 삶을 꿈꾸는 '무성애자들'

각자가 가진 스킨십, 노출, 친밀함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사회적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보는
〈거기까지〉

I.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마다 스킨십, 노출, 친밀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각자가 가진 스킨십, 노출, 친밀함의 기준들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기준(예를 들어, “남녀는 언제나 성적인 관계이다. 동성끼리는 발가벗어도 부끄러울 게 없다.”)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유가 자신에게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것인지 살펴본다.

II. 준비

○준비물: 전지, 필기도구, 표가 그려진 개인별로 나눠 줄 종이, 토론 주제를 담은 종이

○예상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적정참여인원: 20명 내외[조별로 4~5명씩 3~4개의 조]

진행준비: 밑에 있는 표에 사람들이 각자 체크를 해 본 후에 조별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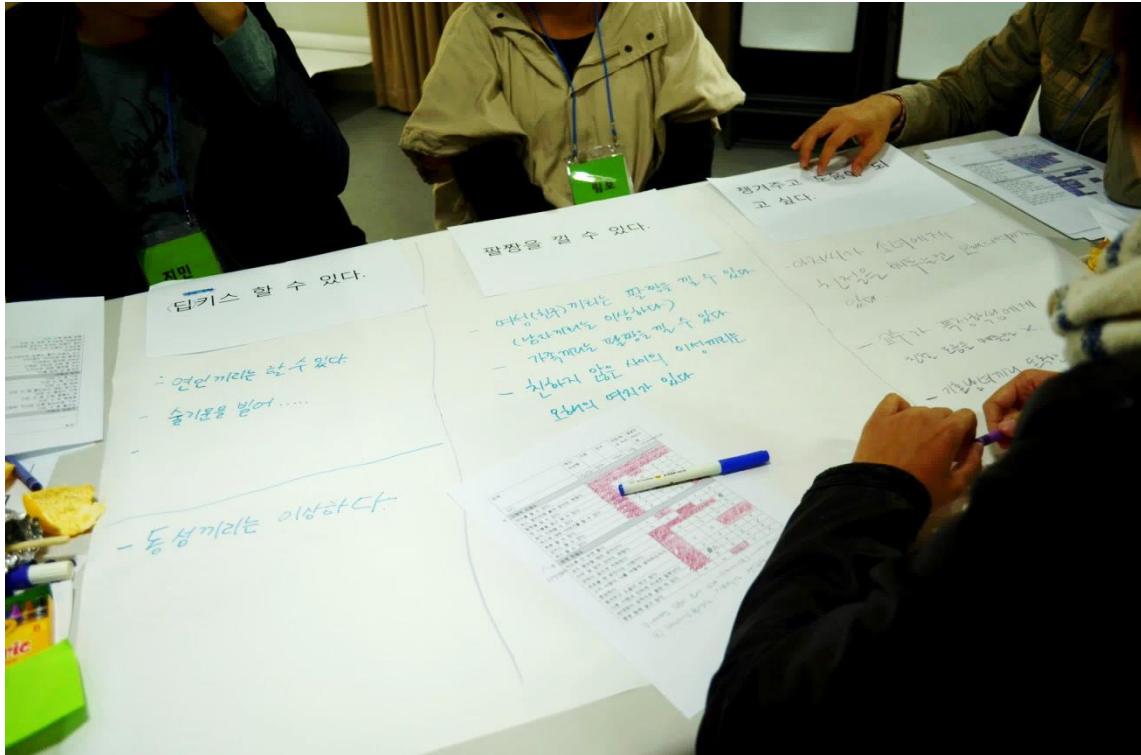
관계	애인/ 이상형		가족		친구		직장/학 교 지 인		얼굴만 아는사 람	
이름 또는 호칭										
버스 옆자리에 붙어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팔짱을 끼어도 불편하지 않다.										
어깨에 기대도 불편하지 않다.										
껴안아도 불편하지 않다.										
뽀뽀해도 불편하지 않다.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다.										

같은 방에서 따로 자도 불편하지 않다.										
단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불편하지 않다.										
같이 목욕탕에 가도 불편하지 않다.										
단 둘이 샤워해도 불편하지 않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하다.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챙겨주고 도움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난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끌린 적 있다.										
평생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Ⅲ. 프로그램 내용

개인별로 표에 체크하고 체크하고 느낀 지점을 나누는 시간과 이후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1. 개인별로 표에 체크하고 체크하고 느낀 지점을 나누는 시간



1-1. 애인/이상형, 가족, 친구, 직장/학교지인, 얼굴만아는사람, 이렇게 다섯 분류에 이름 또는 호칭을 두명씩 적는다.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굴만아는사람 칸 두개에 여자의사선생님, 경비아저씨 이렇게 적을 수 있다.

1-2. 종이에 형광펜으로 아래 항목들이 가능한 칸에 색칠한다. 예를 들어 친구 칸에 적은 김OO과 악수할 수 있다면 “김OO”과 “악수할 수 있다.”가 겹치는 칸에 색칠하면 된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동성애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명의 게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 종로의 기적이란 영화를 보러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자들끼리 섹스 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왜 동성애라고 하면 사랑의 다양한 감정이나 관계의 어려움은 없고 섹스만 얘기 될까요?

섹스는 사랑의 전제 조건일까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각자가 가진 스킨십, 노출, 친밀함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거예요. 누구는 동성끼리라도 같이 목욕탕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이성간이라고 해도 누구냐에 따라 벗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 둘이서 손을 잡고 걸

어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어디까지 스킨쉽을 편하게 여기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각자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고, 이름을 적은 후에 “예YES” 인 칸에 색칠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3. 각자 색칠한 칸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유도한다.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하면서 어떠셨어요? 가장 애매했던 게 뭔가요? OO님은 칸이 거의 비어있네요.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XX님은 칸이 거의 다 채워져 있네요.

친구인데도 누구냐에 따라 기준들이 달라진 분이 있나요? 왜 그런 것 같나요? 본인은 스킨쉽/노출에 대체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인가요? 아님 조금 예민한 편인 거 같나요? 누구냐에 따라 다른가요?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하셨나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나요?

2.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

2-1. 세가지 주제별로 조를 나눠서 개인이 가진 기준과 사회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본다. 사회적 기준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정리해 본다.

*조별로 이야기할 주제

1) 스킨쉽의 기준

- 표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을 비교해보면서 토론하면 된다. (버스 옆자리에 붙어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 팔짱을 끼도 불편하지 않다. 어깨에 기대도 불편하지 않다. 껴안아도 불편하지 않다. 뽀뽀해도 불편하지 않다.)
- 사람마다 편하게 느끼는 스킨쉽의 정도가 다른 지점, 상황이나 어떤 관계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지점을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버스 옆자리에 아저씨가 앉아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여자끼리는 괜찮지만 남자끼리는 팔짱을 잘 끼지 않는다. 이성간에는 어떤 스킨쉽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등)
- 사회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여성이 버스 옆자리 남성을 불편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성희

롱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

2) 노출의 기준

- 표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을 비교해보면서 토론하면 된다.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다. 같은 방에서 따로 자도 불편하지 않다. 단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불편하지 않다. 같이 목욕탕에 가도 불편하지 않다. 단둘이 샤워해도 불편하지 않다.)

-사람마다 편하게 느끼는 노출의 정도가 다른 지점, 상황이나 어떤 관계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지점을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엠티나 캠프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방에 자는 것을 꺼린다. 어떤 사람은 동성끼리 같이 샤워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낀다. 가족과는 친하지만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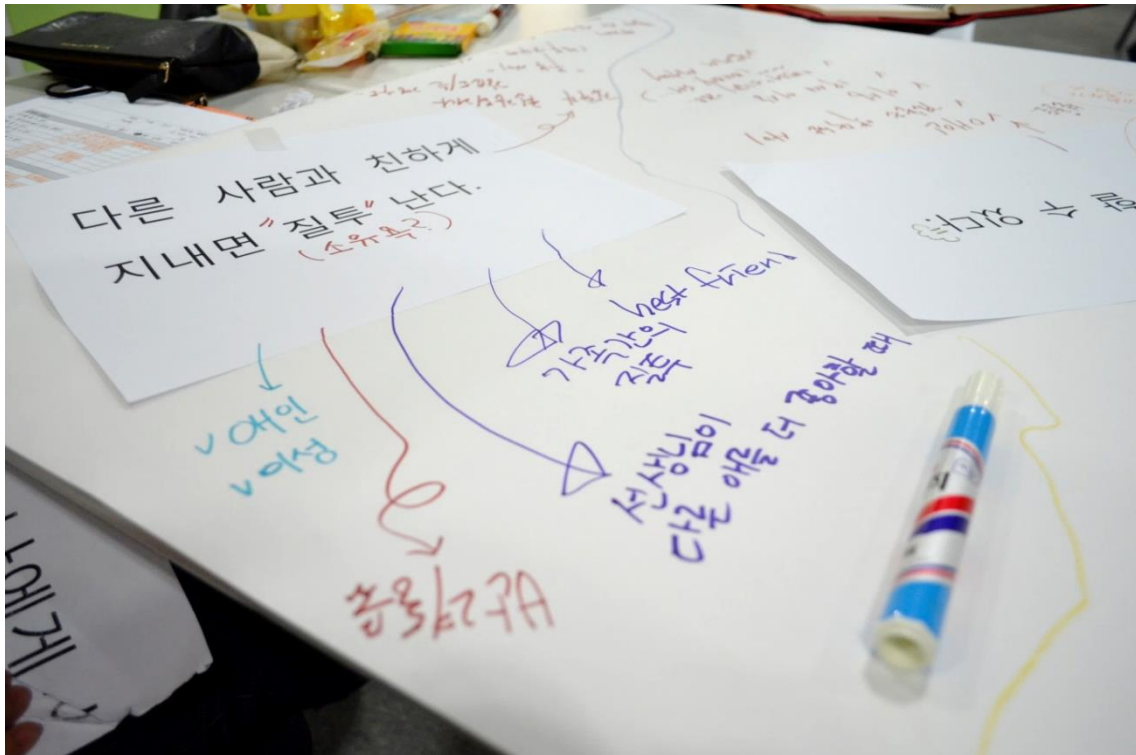
- 사회적인 기준이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동성 사이는 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가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동성끼리는 같이 샤워해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등)

3) 친밀함의 기준

- 표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을 비교해보면서 토론하면 된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하다.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챙겨주고 도움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난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끌린 적 있다. 평생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 사람마다 친밀함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지점이나, 맺고 싶은 관계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이상형에 적은 사람과 성적으로 끌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족에 적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 사회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본다. (예를 들어,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하고, 성적으로 끌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기준이 있다. 질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애인은 성적으로 끌려야 하고,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준이 있다. 등)



2-2. 조별로 나온 내용들을 전지에 정리하고, 각 조별로 나온 내용을 발표한다.



*나온 내용들

1) 스킨십의 기준

- 딥키스를 할 수 있다: 연인끼리 할 수 있다. 술 기운을 빌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한다. 가족과 친구와는 할 수 없다. 조원들 사이에서는 엄청 친한 친구와는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 팔짱끼기: 여자끼리는 가능. 남자끼리는 어떤 사이든 이상하다. 팔짱은 참 여성스러운 행동인 것 같다. 친하지 않은 이성끼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족끼리는 남자끼리도 가능하다고 하는 조원도 있었다.
- 남자끼리 허용되는 스킨십은 뭐가 있을까? 장난치듯 때리는 것. 어깨동무.
- 스킨십을 내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 딥키스는 원치 않는 경우에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팔짱을 끼거나 챙겨주는 것은 원치 않았을 때 했다고 해서 그 정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동의 없이 가능한 스킨십의 정도는 어디일까.
-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스킨십 허용되는 것 같다.

스킨십이 허용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

- 군대에서는 성기를 장난 식으로 건들거나 하는 스킨십도 허용되는 것 같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군대에서 성적인 장난의 대상이 되는 게 작고 약한 남성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권력관계차이가 많이 날수록 성폭력으로 느껴지기 쉽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동성폭력도 그렇고. 그렇죠 사장님을 쉽게 만지긴 어렵죠.

2) 노출의 기준

-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듯. 관계로는 부부, 가족, 애인, 친구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친구의 경우에도 엠티 같은 걸 간 경우와 상황에서 가능. 재난 발생시에는 모르는 사람.
- 같이 샤워할 수 있다: 대중 목욕탕, 친한 친구인 경우, 아이들의 경우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능. 트랜스젠더가 목욕탕에 들어온 것이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성애자도 못 들어올 수 있음.
- 섹스 할 수 있다: 동의한 경우. 어른과 청소년은 안됨. 19세 이상. 변태스럽지 않은 것. 남성의 성구매는 허용. 동성애, 에스엠에 대해서는 안됨.

3) 친밀함의 기준

- 평생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한 부부, 자녀, 애인, 반려동물,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리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 상대방이 성적으로 끌린 적 있다: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나이차가 큰 경우, 불륜 등이 있었어요.
- 상대방이 성적으로 끌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 인종적인 편견도 있음. 특히 한국인 여성과 이주민 남성의 조합에 대해서는 다르게 봄. 이성애자 남성들의 경우는 똥똥하거나 못생긴 여성에게 끌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별로면 돈이 많아서 사귀나 보다. 한다던가.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이 개인 대 개인 매력에 기초한다기보다 다양한 다른 요소가 덧붙여지는 것 같아요.
- 챙겨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 아저씨가 소녀에게 그러거나, 기혼 남녀가 아주 친할 때는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교수가 특정학생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 때는 차별이 된다.
- 질투 - 애인,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 반려동물.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더 예뻐할 때. 형제 자매 간에. 친한 친구가 다른 애랑 재밌게 놀면 질투한다. 부부 사이, 애인 사이는 질투가 권장되기도 한다.

3. 마무리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스킨십, 노출, 친밀함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자끼리는 벗은 몸을 봐도 되는 거고, 동년배의 남녀가 팔짱을 끼면 연인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획일적인 기준들을 왜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왜 각자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걸 존중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애초에 스킨십,노출, 친밀감 같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눠준 표 칸에다 색칠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지점을 찾았기 바랍니다. 혹시 “아! 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느끼고 있네.” 하시는 분 있으셨나요? 그렇담 본인은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들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던가요? 어떤 이유는 납득할만하고 어

떤 이유는 납득하지 못하겠던가요? 일방적인 기준들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이유들로 이 기준이 강요되거나 권장될 수 있는 건지 돌아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라니까.’를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IV. 정리 및 평가

- 성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너무 동일한 집단, 동일함이 요구되는 집단(예를 들어 군대, 학교)일 때에도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교육 목표인 다양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쉽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참여형 보다는 여러 사례를 준비해가 강의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교육 참여자가 어떠냐에 따라 질문의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이 대부분이 교육에서는 남편을 가족 칸에 넣느냐, 애인/이상형 칸에 넣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럴 때는 관계의 카테고리를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 사회적인 기준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더 편하게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끝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각자가 가진 다양한 기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꺼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많은 예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기준이 이래야만 한다는 주장보다는 그 뒤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금기 수평선에 표시해보기

I.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1.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알아본 후, 성, 사랑, 관계가 사회적 규범에 따라 해석되고 통제되는 '금기'에 대해 알아본다.
2. 우리가 맺는 관계 또한 사회적 규범에 지배받기도 한다. 성적 관계로 여겨지는 것들은 더욱 그렇다.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관계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3.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것으로 인한 관계는 어떤 기준에서 해석될까?
4.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란 무엇인가?

II. 준비

○대상 인원

- 참여형 프로그램
- 모둠별 5~6명 규모, 전체 20~30명 가량이 적당함
- 성소수자 및 비성소수자,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다른 가치관이나 경험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둠별로 섞여 있으면 좋을 것

○준비물

- 모둠별로 수평선이 그려진 전지 1장
- 여러 색깔 매직

III. 프로그램 내용

1. 사전강의(10분)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 우리는 살아가며 성(관계)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 수평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성(관계, 취향)들을 위치시켜보고 그것을 왜 그 곳에 써넣었는지에 대해 토의해보세요. 아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에 위치시킨다.

상황카드

남성의 성경험	남녀 부부의 신혼첫날밤	중학교 여학생의 자위	스무살 차이나는 남녀의 섹스
동성애자 신부	한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녀 부부	트랜스젠더의 출 산	여자 고등학생과 삼십대 중반 남성 의 연애
게이와 레즈비언 의 결혼	부인이 있는 80대 할아버지의 섹스 파트너	공공장소에서 키 스	17세 커플의 연애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고 연애 하기	남편이 있는 여성 의 새로운 애인	군복무 중인 군인 끼리의 섹스	여성 성노동자
에스엠	동성결혼	고등학생의 임신	HIV/AIDS감염인 과 비감염인의 섹 스

* 상황카드는 다른 내용으로도 만들 수 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폭력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여겨지지만 차별이나 편견에 기반한 판단일 수도 있는 상황을 고루 제시한다.

2) 프로그램 2

- 모둠에서 위의 상황카드 중 금기에 붙인 것 하나와 권장에 붙인 것 하나를 선정하여, 왜 그 곳에 위치시켰는지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도록 한다. 여러 장을 사용해도 된다. 모둠이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왜 이 곳에 써넣었는지,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은 왜 쉽게 결정되고, 왜 어렵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어본다.

같은 상황이지만 모둠마다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진행자가 모아서 왜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발표가 끝나면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인다.

진행자는 포스트잇을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서 다시 붙이며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한다.

3) 프로그램 3

- 프로그램1에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체크한 같은 상황카드를 다시 수평선이 그려진 대자보에 재배치한다. 이 때는, 모둠에서 현재의 사회적 기준과 상관없이 자유/평등/비폭력의 관점에서 다시 배치한다.
- 두 장의 수평선을 비교하면서 모둠마다 왜 위치를 바꾸게 되었는지 이유를 발표한다.
- 진행자는 모듬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관계 및 행위의 윤리 선언문을 함께 만들어본다.

3. 정리 및 평가

- 어떤 종류의 사람까지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떤 관계하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은 구체적인 개인을 대입해봤을 때,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다른 점들이 많은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설명 가능한가?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위축되거나 비난 받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 기준을 정하는 성별 규범, 성적 관계, 정상성이 적용되는가? 개인이 느끼는 친밀성과 관계가 얼마나 규범에 의해 지배받는가?
- 사회자가 마무리로 정리한다. 관계들을 좀 더 자신이 느끼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름 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윤리적인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동의되지 않음과 동의되는 관계, 성적자기결정권, 불편함 등이 ???

차별의 땅 건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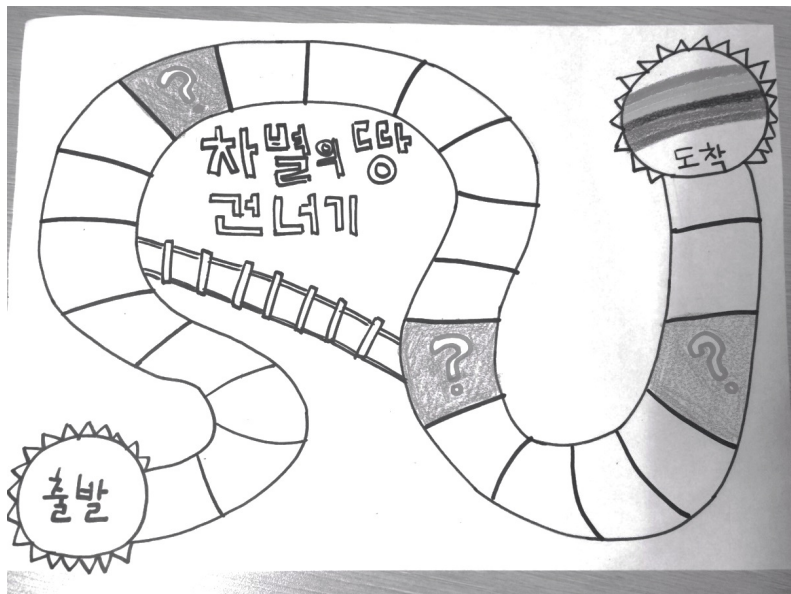
I. 프로그램 소개 및 목표

〈차별의 땅 건너기〉는 말판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말판의 해당 칸에는 성소수자들이 차별 당하는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다. 차별을 당하는 ‘대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특정 행동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I. 준비

- 준비물: 자석칠판, 빔프로젝터, 주사위, 말판이 그려진 전지, 말, 말판의 각 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담은 PPT, 물음표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담은 종이카드.
- 진행시간: 1시간30분
- 적정 참가인원: 세 팀 이상, 각 팀은 네 명에서 여섯 명 사이. (두 팀으로 진행할 경우, 말판의 칸 수가 늘어나야 한다)

*말판



Ⅲ. 프로그램 내용

위의 사진처럼 말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칸)는 ‘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차별의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물음표 칸)는 특정 미션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다.

1. 진행

1-1. 각 팀마다 말을 고르고 주사위를 굴릴 순서를 정한다.

1-2. 순서에 따라 주사위를 굴리고 주사위의 숫자만큼 해당 팀의 말이 앞으로 나간다.

1-3. 말이 도착한 해당 칸의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1)‘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 칸에 도착한 경우에는, 21장의 카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는다. 각 카드 속의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황을 ‘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 해당 팀의 구성원들에게 질문한다. (2)물음표 칸에 도착한 경우에는, 10장의 물음표 카드들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해당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다.

1-4. (1)만약 해당 칸의 문제(‘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 칸)를 풀지 못한다면 해당 팀의 말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팀의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해당 칸의 문제를 마무리한다. (2)이와 비슷하게, 물음표 칸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팀의 말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총 21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고르세요. 아 제시문은 이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불라불라 아 그것만 있을까요? 등등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설명. 예시들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까지 요구)+정리멘트까지 [차별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의 땅 건너기' 차별의 땅을 건너다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가 무엇이며 누구를 억압당하는지를 알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같은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타파한다는 것은 혼자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할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의 땅을 건너간다는 것은 차별의 땅에서 연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1장의 카드: '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 칸

카드1.

“선택했으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다고 할 때, 개인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어려움은 개인 몫으로 남겨진다. 그러나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아니라 물건을 훔쳐간 가해자가 잘못된 것처럼, 차별의 책임을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외에도,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직장에 다니던 중에 임신한 여성(임신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자/타의 적으로 경력을 중단하거나 하게 된다) 등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카드2.

‘얼굴이 드러나면 안돼요’



해설: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어렵다. 실제로 이들은 심리적, 물리적 폭력의 대상이 된다. 위의 사진은 퀴어(Queer)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인 퀴어퍼레이드 때 촬영된 것이다. 사진에 등장한 모든 이들은 선글라스나 패말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촬영자에 의해 모자이크가 되어있다. 이와 비슷하게, 성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지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3.

‘기독교는 지금도 사회적 정신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자라나는 세대를 염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연론회)



해설: 한국교회연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의 미래를 바르게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헤친다는 이러한 비난은 어떤 사상의

정합성에 대해 논할 필요성을 없애는 까닭에, 종북(북한의 이념 및 체계를 지지하는 이들)을 매도할 때에도 쉽게 사용된다. 게다가 이들이 말하는 ‘국가의 미래’는 기독교에 준거하는 까닭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든 것들은 위의 논리에 의거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카드4.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동인련(동성애자인권연대)을 동인련이라 부르지 못해요

해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흥대에 사무실을 구할 당시에, 동인련이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동인련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면,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뿐더러 사무실을 오가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차별을 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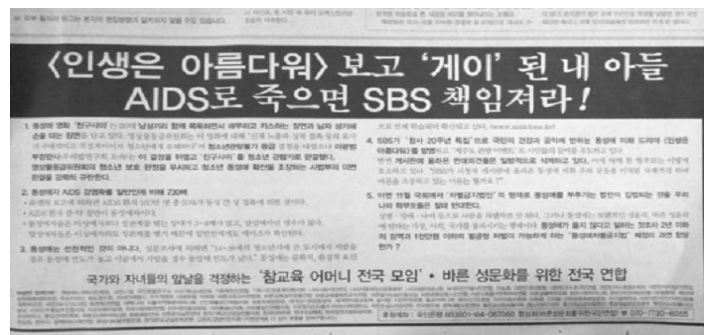
카드5.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해설: 이는 경험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의견과 주체성을 낮게 평가하는 식의 발화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발화로는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네가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등이 있다. 청소년(혹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주 듣는 차별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6.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해설: <인생은 아름다워>는 SBS에서 진행된 드라마로, 극 중에서 두 남성이 커플로 등장한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다루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라며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에서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과장되게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방식의 논리이다. 실제로 위의 광고문구는 ‘HIV에 감염되면 죽는다’며 질병에 대한 편견과 ‘남성동성애자는 모두 HIV에 감염될 것이다’라는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주노동자와 여성들도 차별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면 국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거나 이들이 한국인들의 장기를 밀매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성기의 색깔이 짙은 정도와 성관계 횟수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카드7.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해설: 이들이 말하는 ‘자연의 섭리’는 현재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까닭에, 소수자들은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모성’이 없다고 이야기되는 여성들과 동성애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카드8.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불행할 것이다.”

해설: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모든 이들이 자주 접하는 차별적인 말이다. 아이를 낳거나 기르려는 양육자가 미혼(비혼)이거나 동성애자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양육자가 가난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을 때에도 차별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와 더불어 태어날 아이가 혼혈(백인혼혈은 비교적 사회에서 승인된다)인 경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카드9.

입에 담기 어려운 말?



해설: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을 살피봄으로써, 특정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으로, 조지부시와 토니블레어의 관계를 게이에 빗대어 그 둘의 사이가 잘못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동성애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언어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 어둡거나 행색이 초라할 경우에는 ‘외노자(외국인노동자) 같다’고 말하기도 하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할 때 ‘절름발이 정부’라고 말하기도 한다. 두 상황 모두에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와 장애인(절름발이)이 욕설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카드10.

“신분증을 요구하는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가게에 가기 꺼려집니다.”

해설: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은, 신분증이 없거나 자신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노숙인들은 전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어렵다. 반면에 트랜스젠더는 후자에 속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성별과 신분증 상의 성별이 일치 않는 까닭에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다른 남한국민과는 달린 주민등록 뒷자리번호의 첫 번째 숫자가 5나 6으로 시작하는 새터민이나 신분증에 국적이 명시되어 있는 이주민 등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카드11.

“난 동성애자는 아닌데 ...”

뉴스

[\[화신\] 천정명 '내가 동성애자? 사실은....' 게이셜 솔직 고백 - SBS E!](#)

SBS E! - 2013. 10. 1.

천정명은 “당연히 여자 좋아한다. 예전 내 연관 검색어에 ‘동성애자’가 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친구를 ...

[천정명 “동성애자 아니다” 폭탄 발언...왜? - munhwa.com](#)

문화일보 - 2011. 10. 22.

OSEN에 따르면 천정명은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 게릴라데이트에 참여, 최근 출연 중인 수목극 ‘영광의 재인’ 소개를 비롯해 배우, ...

[천정명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이 좋다. 하하” -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 2011. 10. 22.

배우 천정명이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동성간의 우정이 더 좋다고 고백했다. 천정명은 2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

[‘연예가중계’ 천정명, “동성애자 아니지만, 동성이 더 좋아” - 한국경제](#)

한국경제 - 2011. 10. 22.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원민순 기자] 연기자 천정명이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이 더 좋다고 밝혔다.

[스포츠포스트 :: 천정명 “동성애자는 아닌데.. 남자친구들 더 좋아”](#)

스포츠포스트 - 2011. 10. 22.

천정명은 “동성애자는 아닌데 이성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정상이다”고 말하며 몸을 흔들었다. 천정명은 “동성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 남자 친구들 ...

[천정명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과 노는게 좋다” 폭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 2011. 10. 22.

천정명이 여자보다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성 좋다고 폭로해 화제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게릴라 데이트에 참여한 천정명은 ...

뉴스 검색결과 더보기 »

해설: 극 중에서 동성애자를 연기하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야 연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사회비판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나는 운동권이 아닌데’라고 말하도록 만들거나, 성평등이나 성해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카드12.

‘이반검열’

설문지

※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여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학교의 건전한 생활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 ② 이해 할 수 있다. ③ 이해 할 수 없다.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 우리 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④들은 적은 있다.
- 있다면 몇 학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동성애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상담 ② 학교 내 봉사 ③ 무기정학 ④ 퇴학
- 동성애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그 학생의 학년 반 실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학년 반 성명 :

광진구의 D모 여고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에서 부분발췌

해설: ‘이반검열’은 말 그대로, 학내의 ‘이반’(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은어)을 ‘검열’하는 것이다. 이는 낙인과 편견에 기반을 둔 검열로, 특정 사람들은 색출해서 처벌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피고용인의 HIV감염 여부를 검사하거나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병 검사를 의무적으로/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피부 색깔만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축출하려는 것이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카드13.

“쫓쫓쫓, 괜히 거리에 나와서 말이야”

해설: 많은 이들은 성소수자들에게 ‘그냥 조용히만 살아. 너희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차별적인 상황(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자들에게 숨을 것을 강요하는 태도는 성소수자 외에도, 시위나 집회를 하는 이들에게나 장애인(‘휠체어를 괜히 끌고 나와서 말이야’, ‘왜 저런 애들을 밖에 데리고 나오는 거야’)에게 적용될 수 있다.

카드14.

“결혼을 해야 사람구실을 하지.” “나이가 몇인데 언제 결혼할래?” “결혼 안 해요?”



해설: 우리 사회는 특정 나이대의 성인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할 것이며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 내에서 정치적 신념이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非婚)인구는 무시당하거나(‘결혼을 해야 사람구실을 하지’) 끊임없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언행은 정상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장애인에게 결혼할 것을 종용하지 않는다.

카드15.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그렇게 말라서 어따 쓰려고.” “여자가 칠칠 맞지 못하게 그러고 다니냐?”

해설: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요구되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소하거나 연약한 남성은 남성으로 취급받지 못하여 몸집이 좋거나 활발한 여성은 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사회적으로 의심받기도 하며 아이를 싫어하는(‘모성’이 부족한) 여성 및 어머니는 이상한 존재로 여겨진다. 게이(남성동성애자)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는 반면,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는 ‘남성스럽게’ 행동할 것이라는 인식도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다.

카드16.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

「...3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A(62·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 옆 동 20층에 올라가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 (중략)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산의 한 여상을 졸업한 뒤 동창인 B(62)씨와 40년을 동거해왔다. 1990년대부터 둘은 이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주로 B씨가 회사생활 등을 하며 돈벌이를 했고 A씨는 살림살이를 했다. 그러나 지난 9월말 몸이 몹시 수척해진 B씨가 병원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B씨는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이달 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간병하면서 B씨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간병과정에서 B씨 명의로 된 아파트와 보험금 상속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A씨는 병원을 떠났고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패물 등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 나갔다. 이후 B씨 가족은 A씨가 B씨 명의 통장에서 주식배당금, 국민연금 등의 현금을 빼간 사실을 알고 A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아파트 집열쇠도 바꿨다. B씨 가족은 40년간 동거하며 최근에는 조선소 허드렛일까지 하며 가장역할을 해온 B씨가 암말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요구를 한 A씨에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집을 나온 A씨는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방을 얻어 살다가 뒤늦게 B씨의 사망소식을 접했고 한달여만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은 A씨가 동창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B씨가 암으로 숨지고 경제적인 갈등까지 겹치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0-10-31, 김선호 기자)

해설: 기사의 A씨는 40여 년 동안 B씨와 동거를 하였지만 두 사람이 같이 일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태는 A씨와 B씨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A씨와 B씨가 기혼관계였거나 이성애커플로서 동거를 했다면, B씨가 밖에서 돈을 벌지 않는 대신 가사노동을 전담한 것과는 무관하게 A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가족에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까닭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장애인인데,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는 자신에게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직속가족이나 친척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다.

카드17.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많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설: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카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국한시킴으로써 성소수자 문제가 공적영역에서 논의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이는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그런 아빠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모습이나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나는 저상버스 타는 장애인을 한 번도 못 보았는데?’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카드18.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교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제가 해 놓은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자살하기 3일 전에 남긴 글의 일부)

해설: 사건의 당사자는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며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똥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듬’의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동안 교사를 포함한 학교는 이를 묵인하였고, 결국 당사자는 15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학생이 맞을만한 짓을 했으니까 체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네가 가해자를 먼저 유혹했다’, ‘네가 창녀처럼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며 피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한다.

카드19.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에서 일부 인용.

“뭘 지금 와서 새삼 따질 것까지야……. 그리고 내가 계속 거기서 진료를 받았어. 그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나름대로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차별이 있었다면 분명히 고쳐야 하고, 문제화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로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었고, 모르고 한 행동이었고, 그러면 굳이 이슈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막 시끄럽게 하면 다른 데서 더 조심하고, 여러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였는데.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편이랄까. 처음엔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해설: 의료과정에서 환자의 정보가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는 HIV감염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지 못한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는 차별이 미묘하게 발생하는 지점인 까닭이다.

카드20.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에서 일부 인용. 빈칸은 인권교육팀에서 수정.

“너도 생각해봐. 직장에서 자기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법적으로는 해고할 수 없게 돼 있지. 안전장치는 돼 있어. 그런데 차별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 같은 거. 목소리를 내려면,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있어도 누가 대표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나는 나로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힘들잖아. 그게 바로 사회구조에서 나오는 차별이야. 지금 당장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 그 대신 그만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야.”

해설: 개인의 정체성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만이 차별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HIV감염인과 성소수자(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전과자, 사회비판적인 운동을 하는 활동가, 장애인(특히 정신질환) 등이 있다.

카드21.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에서 일부 인용. 빈칸은 인권교육팀에서 수정.

“물론 남들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라는 것은 숨기고 싶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지내고 거짓말하기 싫은데 남들한테 이해받기가 어렵더군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요. 얘기했다가 바로 관계가 끊긴 경험을 몇 번 거치면서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설: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 의가사제대를 한 남성,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 맞섰던 노동자 및 해고자(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회사들은 이 리스트를 공유한다), 인공임신중절을 했던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해 신고한 이들(특히 가벼운 사건을 치부되는 성희롱 피해) 등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3. 10장의 카드: 물음표 칸

카드1.

받침 빼고 ‘산토끼’ 노래 부르기

카드2.

‘깊은 삼속 웅달샘’ 노래에 맞춰 구구단 외우기

카드3.

(환호성과 함께~) 셋 칸 앞으로 전진!

카드4.

절대음감, ‘구멍 난 양말’

카드5.

다른 조와 자리 바꾸기

카드6.

한 번 쉬기

카드7.

(두둥~) 뒤로 세 칸!

카드8.

한 번 더!

카드9.

일심동체! (제시어: 슈퍼맨, 배트맨, 투쟁, 귀요미 등)

카드10.

코끼리코 다섯 바퀴를 돌고나서, 주사위를 던져 다른 조원이 받기

IV. 정리 및 평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는 인권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인권감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청소년/청소녀,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다른 소수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높은 역량 덕분에, 각 사안이 차별로 이해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목표였던 ‘차별과 차별이 만나는 지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사안들 혹은 참가자가 이야기하는 바들이 각각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논쟁이 벌어진다면, 프로그램 진행자는 적극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프로그램의 본래 목표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별의 땅 건너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성소수자 인권 혹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본 프로그램이 활동가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게임적인 요소란, 경쟁을 유발하거나 참가자들로부터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들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재치 있는 빠른 진행도 이에 속한다.

- 참가자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문제 및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 가령,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문제의 지문들을 좀 더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다시 작성해야 한다.

- 문제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참가자가 학생일 때에는 친구들이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또는 이주민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의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접하는 청소년과 이주민의 삶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 답하였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차별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집

<둘로 나뉜 세상, 흔들리다>

발행일 2014년 11월

펴낸곳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인권교육팀

www.lgbtpride.or.kr

E-mail : lgbtpride@empas.com

Tel : 070-7592-9984 Fax : 02-334-9984

글쓴이: 나라, 주리, 이경, 덕현, 의표, 지아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민석(동인련)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lgbtpride.tistory.com

twitter_ @lgbtaction

facebook_ [facebook.com/LGBTQaction](https://www.facebook.com/LGBTQaction)

* 이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인권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문의바랍니다.